



# TAMAN MINI

## 자카르타 인클루시브 시민의 공간

# TAMAN MINI

### An Inclusive Civic Space in Jakarta

약 5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와 서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도시 형성과 성장이 이루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인류는 역사상 또 다른 위기의 시기를 거쳤다. 이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 살고 있다. 매일 전세계적으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다. 2020년 90% 정도의 인구가 약 20개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언젠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북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오슬로도 마찬가지다. 세계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모든 곳에서 도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이해 관계에 놓인 집단의 복지를 위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투자 금융 및 지식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스마트 도시라는 컨텍스트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계획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초점은 도로·공항·철도 링크 및 전자 통신에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생기는 농촌의 문화적 소외는 여전히 주요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다문화와 다민족의 대도시 자카르타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 '타만 미니 인도네시아 인다'는 다양한 문화를 지닌 자카르타의 지역 사회 단체 서비스로 고유한 시민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미니어처 테마파크는 인도네시아의 식물군과 동물군을 보유한 150헥

The first urban formations or growth of cities were in Mesopotamia and West Asia about five millennia ago. In the past decade we crossed another critical threshold in the history of humanity. More than half the population of the world is now living in cities and towns. Every day over 200,000 people are moving into an urban centre across the worl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ituation is even more dramatic. By the year 2020, nearly 90% of the population will live in about 20 cities. In Australia, an almost comparable situation has been forecast for sometime. Also in Northern Europe, Oslo in the fastest growing city. The rapid growth of the world economy is accelerating pace of urban development everywhere.

Liveable cities means developing strategies for wellbeing of stakeholder populations. Competition for attracting investment finance and knowledge capital characterize the context for smart cities. The focus on planning and infrastructure has been concerned with roads, airports, railroad link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But the cultural dislocation resulting from rural urban migration continues to be a major concern.

Jakarta, a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metropolis has developed innovative approaches. It assumed responsibility through creating a unique civic space in the service of Jakarta's culturally diverse community groups - Taman Mini Indonesia Indah. This Miniature



Places of worship of various faiths are actively used regularly and maintained as part of an Interfaith Complex.

타르 규모의 시설로 1970년대에 동부 자카르타에 건립되었다.

인도네시아 열도의 미니어처 섬과 호수는 지방 전시관, 박물관, 레크리에이션 단위에 둘러싸여 있다. 파빌리온은 의상, 수공예품과 악기를 포함하여 민족의 지적인 객체가 모두 전시된 전통 가옥의 형태이다. 각각의 파빌리온은 각 지방의 문화 활동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이곳은 이민 노동자 및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타만 미니의 레이아웃은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하며 34개 주와 498개 지구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대표적 유형 및 무형문화유산을 선보인다. 이 문화 공간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에게 인도네시아를 소개하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

Theme Park was constructed in East Jakarta in the 1970's as a 150 hectare facility with flora and fauna of Indonesia.

A lake with miniature islands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 is surrounded by provincial pavilions, museums and recreation units. These pavilions have traditional houses containing ethnographic objects including costumes, handicrafts and musical instruments. Each pavilion is a space for activities and education in the culture of its respective province that sponsors it.

It caters to needs of the immigrant of workers and their families from the provinces. The layout of Taman Mini symbolizes the cultural diversity of Indonesia. Representative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country's 34 Provinces and 498 districts and municipalities are featured. This cultural space is a window to Indonesia and appreciated by visitors from across the world.



Welcoming dance at North Sumatra Pavilion.



Miniature cultural space or TMII is a park of 150 hectares with a lake and miniature islands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

Thanks giving ceremony of Buton Tradition at Southeast Sulawesi Pavilion.



타만 미니는 물리적·경제적·정신적·영적 활동의 균형을 위해 고안되었다. 영적인 삶, 교육 및 문화·기술·경제 및 복지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다섯 가지 주요 발전정책을 제시한다. 타만 미니는 연구와 더불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인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과 세계의 여러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생생한 문화유산의 요소들을 통해 오락과 교육의 장소를 제공한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500개 이상의 소수 민족 그룹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타만 미니는 사회 문화적 단위로, 인도네시아 열도 '누산타라'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문화의 다양성은 인도네시아어 모토 '다양성 안에서의 화합'이라는 의미의 '빈테카 투갈 이카'와 같이 유지하고 증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이곳 사람들은 이해한다. 이 문화 다양성은 2001년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세계 선언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서로 다른 문화 간 참여의 근간이 되었다.

타만 미니는 일 년 내 자카르타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및 국제적 방문객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1975년 개관 이래 13억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 2013년 한 해만 4천 6백만 명 이상이 가족 단위로, 혹은 학생단체로 이곳을 방문했다.

타만 미니에서는 1,350명 이상의 학생들이 27개의 워크숍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생활 문화 유산의 가치를 윗 세대로부터 전수받는다. 다양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도시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이주로 문화적 소외에 처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종종 이러한 지역사회들은 무형유산을 전수할 여유조차 없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타만 미니의 설립 및 지속적인 개발은 전략적 협업을 통

Taman Mini was conceived to create a balance between physical-economic and mental-spiritual wellbeing. Indonesia has the policy of five pillars of development: Spiritual, Education and Culture, Technology, Economy and Welfare. Taman Mini aims to promote appreciation of Indonesian culture through research and revita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presents a place of recreation and education through living heritage elements to the people of Indone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Multicultural awareness is important in an archipelagic state like Indonesia, with over 500 ethnic groups. Taman Mini i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Indonesian archipelago, Nusantara, as a socio-cultural unit. It embodies the aspiration that cultural diversity should be maintained, appreciated, enjoyed, and promoted by all, promoting the Indonesian motto *Bhinneka Tunggal Ika*, Unity in Diversity. This is presented as a basis of intercultural engagement among the people of Indonesia as envisaged in the UNESCO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Taman Mini is easily accessible throughout the year for the residents of Jakarta, visitors from other provinces and international visitors. Since the opening in 1975, it has received over 130 million visitors. In 2013, it received over 4.6 million visitors, mostly families and students.

Taman Mini facilitate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donesia's diverse living heritage values through 27 training workshops with over 1350 students at any given time. Providing space for diverse cultures addresses a critical challenge associated with urban development. It addresses the dislocation of migrant cultural practitioners from their villages, towns and source communities. They often find the migration to cities leaves them with no space conducive for expressing and transmitting their intangible heritage.

The foundation and ongoing development of Taman Mini has been through strategic collaborations. The main actors are community



01 Papua Dance Performance. 36th Anniversary of TMI at Tanah Airku Theatre.  
 02 Asmat sculptor in the Museum Exhibition at Sasono Utomo.  
 03 Performance of Sutasoma Dance Drama. 39th Anniversary of TMI at Bhineka Tunggal Ika Theatre



해 이루어졌다. 이 협업의 주체는 지역 사회 단체, 시민 단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이다. 지역 사회에서 문화 유산의 가치 전수는 지역 및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문화적 활동을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만 미니는 하라판 키타 재단에서 관리 및 개발을 맡고 있다. 주인 정신과 민족 문화에 대한 열정이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타만 미니는 인도네시아의 지역,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세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타만 미니와 같은 시민의 공간은 도시 인구의 문화활동을 위한 지식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지역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회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자연과 문화 유산을 도시 형성 과정에서 재해석하며 예술·문화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된다. 또한 광범위한 문화 산업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문화 공간은 도시 환경에서 창의성을 촉진한다. 현대 예술, 축제와 이벤트가 이루어 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무용과 오페라 등의 클래식 공연은 생활 및 무형 유산을 바탕으로 접합된 그림과도 같다. 지역 사회의 목소리, 가치와 전통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문화공간이다.

지속 가능한 문화 공간은 체계적인 문화 매핑 및 계획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균형 잡힌 도시 개발·문화·사회·경제 및 환경 문제 등 폭넓은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포괄적인 문화 공간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폭 넓은 관객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아마레스워 갈라 교수 | 덴마크 인클루시브 박물관장, 양심의 장소 국제 연합 홍보대사 [www.inclusivemuseum.org](http://www.inclusivemuseum.org)  
 Professor Dr. Amareswar Galla,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Inclusive Museum, is an Ambassador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for Sites of Conscience. ([www.inclusivemuseum.org](http://www.inclusivemuseum.org))



groups, NGOs,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arrier and transmitter communities of heritage values play the lead role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cultural activities with the support of loc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Taman Mini is run by the Management and Development Body under the Harapan Kita Foundation. Its sustainability is ensured through a strong sense of ownership by the stakeholders as it represents the cultural aspirations of all ethnic communities. It is supported by the three tiers of local, provincial and central governments of Indonesia.

Civic spaces like Taman Mini can enhance their role as knowledge centres of activity for the cultural representation of urban populations. They foster a sense of place and self-esteem for diverse peoples. They provide the focus and resources for community cultural development activities and social learning spaces. They interpret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urban formations. They are centres for the preservation, presentation, continuation and management of artistic, cultural and heritage endeavours of diverse peoples. They are an integral part of the broader cultural industry and economics of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s.

Cultural spaces promote creativity in urban environments. They are the fertile grounds for contemporary arts movements, festivals and events of significance. Adaptations of classical performances of dance and opera are illustrations of working with living and dynamic intangible heritage. The voices, values and traditions of communities in the broader environment foste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cultural spaces are based on systematic cultural mapping and planning. Balanced urban development requires consideration of a range of cultural,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eratives. An inclusive cultural space enables broad audience participation by being accessible, versatile and resourceful through participatory practices.

All images used in this article are copyrighted by Taman Mini. [www.tamanmini.com](http://www.tamanmini.com)



Mariela Nunez and Nehemiah Kish in Manon © ROH Johan Persson, 2011

# 로얄 발레, 영국의 가장 권위있는 발레단 The Royal Ballet, Great Britain's most prestigious ballet company



Federico Bonelli and Marianela Nuñez in Aeternum © ROH Johan Persson, 2013



Dancers of The Royal Ballet in Aeternum © ROH Johan Persson, 2013

로얄 발레는 영국의 가장 권위있는 발레 컴퍼니이자 세계적으로 뛰어난 클래식 발레단 중의 하나이다. 디렉터 케빈 오헤어가 이끄는 로얄 발레는 19세기 클래식 발레로부터 20세기 안무의 거장 프레드릭 에쉬튼과 케네트 맥밀란의 작품들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또한 로얄 발레 전속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와 협력 안무가 크리스티퍼 윌든, 이 두명의 세계적인 안무가의 새 작품들도 공연에 올리고 있다. 로얄 발레는 새로운 안무에 대한 더 많은 시도를 위해 지난 2012년 리암 스칼렛을 전속 안무가로 맞았다.

## 로얄 발레와 세계적인 발레단이 10월 1일 선보이는 생생한 현장 중계

10월 1일 세계 발레의 날을 맞아 다섯 개의 세계적인 발레단이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리허설 스튜디오의 현장 상황을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한다.

The Royal Ballet is Great Britain's most prestigious ballet company and one of the greatest classical ballet companies of the world. Led by Director Kevin O'Hare, the Company has a wide-ranging repertoire that showcases the great 19th century classics alongside heritage works including those of its two great 20th century choreographers Frederick Ashton and Kenneth MacMillan. In addition, The Royal Ballet performs new works by Royal Ballet Resident Choreographer Wayne McGregor and Royal Ballet Artistic Associate Christopher Wheeldon, two of the foremost international choreographers of today. The Royal Ballet continues to create and encourage new choreography and appointed Liam Scarlett as Royal Ballet Artist in Residence in 2012.

## The Royal Ballet & World Class Ballet Companies, one day of live streaming on 1st October

On the 1st October will take place the first ever World Ballet Day online event. Five of the world's leading ballet companies will stream live behind the scenes action from their rehearsal studios.



Royal Ballet Principal Sarah Lamb in rehearsal ©ROH Johan Persson, 2014



Artist Nicol Edmonds in rehearsal ©ROH Johan Persson, 2014



Royal Ballet Principals Edward Watson and Natalia Osipova in rehearsal ©ROH Johan Persson, 2014



Royal Ballet Artist Solomon Golding in rehearsal ©ROH Bill Cooper, 2014

발레의 날 시작에 맞춰 오스트리아 발레, 볼쇼이 발레, 로얄 발레, 캐나다 국립 발레단, 샌프란시스코 발레 등 다섯 개의 발레단이 멜버른의 오스트리아 발레단을 시작으로 돌아가며 각각 4시간 씩 현장중계를 한다. 생중계는 시간과 지역을 넘어 시차에 따라 멜버른에서 모스크바, 런던, 토론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간다.

생중계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대 뒤 발레 무용수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시청자에게 주어진다. 각각의 발레단은 비슷한 형태의 반복적인 연습 일과를 갖지만 안무나 공연의 방식은 저마다 독특한 특색을 지닌다. 이번 생중계는 몸을 풀기 위한 아침 연습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훈련으로 무용수들이 몸과 기량을 다지는 모습과 다음 공연을 위한 리허설 장면까지 발레의 모든 부분을 공개한다. 발레 무용수들의 강도 높은 훈련과 엄청난 노력이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를 만들어 낸다.

시청자들은 또한 발레와 더불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무용수, 안무가, 코치들과 직접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진다. 하루 동안 질문도 하고 세계 각지에서 피루엣을 직접 해보는 장면들이 필름에 담겨 후에 세계적으로 발레를 홍보하는 영상으로 편집될 것이다.

이날의 방송은 시청하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후에 편집된 영상도 출시될 예정이다.

세계 발레의 날은 2012년 3월에 유튜브와 가디언 웹사이트에서 9시간 동안 생중계 되었던 로얄 발레 라이브가 발전된 형태이다. 당시 이 유일무이한 생중계 방송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으며 유튜브의 로얄 발레 라이브 영상은 현재까지 총 2천 5백만이 시청하였다. 그러나 이번 생중계는 다른 4개의 발레단이 최초로 자신들의 뛰어난 무용수들이 무대 뒤에서 흘리는 땀과 그들의 의지를 카메라에 담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http://www.roh.org.uk/worldballetday>

Starting at the beginning of the dancers' day, each of the five ballet companies – The Australian Ballet, Bolshoi Ballet, The Royal Ballet, The National Ballet of Canada and San Francisco Ballet – will take the lead for a four hour period streaming live from their headquarters starting with the Australian Ballet in Melbourne. The live link then passes across time zones and cultures from Melbourne to Moscow, London, Toronto and San Francisco.

The live streaming will take viewers on a journey into the rarely seen backstage lives of ballet dancers. This unusual access will throw a spotlight on the differences in style between the five companies as they follow a very similar routine but approach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in the ways that have made them unique on the world stage. Starting with morning class to warm up the body with different exercises, moving on to rehearsals for their upcoming performances the day will be a celebration of dance; the athleticism and unparalleled dedication of all those involved in creating a world-class ballet company.

Viewers will be able to engage and interact with dancers, choreographers and coaches who live and breathe ballet every day of their working lives, asking questions throughout the day as well as having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by submitting a film of themselves doing a pirouette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These will be edited into a film celebrating the worldwide appeal of dance.

The day's streaming will be repeated on YouTube in full so that viewers around the world can catch up on any parts of the day they missed. Edited highlights will then be made available for further viewing.

World Ballet Day is a development from Royal Ballet Live which was a nine-hour live streaming via YouTube and The Guardian website in March 2012. This unique event achieved 200,000 views of the live stream and repeat broadcast and a total of 2.5 million views of YouTube Royal Ballet Live material to date. It is, however, the first time that the other four ballet companies are taking the cameras backstage to reveal the sweat and determination of these talented dancers.

<http://www.roh.org.uk/worldballetday>